사랑의 기도연대
가정예배 5월 넷째주

- ✓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사랑의 기도연대를 가정예배로 가족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 ✓ 하루 한 번 식사 기도시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 축복기도를 해주세요.
- ✓ 주말에는 가정예배를 드려요.

기 도

하나님, 저희 가정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주세요.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찬 양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말씀 읽기

사도행전 4장 32-37절

32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3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34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36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37 그가 밭이 있으매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말씀 나눔

오늘 본문에는 격려하는 일을 잘했던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바나바 입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언제나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잘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에게 바나바(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신약성경에 바나바의 이름이 나오는 곳마다, 그는 누군가를 격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격려해주었던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모두 사울을 의심하고 멀리했을 때, 바나바가 사울을 믿어 주었기에 그가 안디옥에서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는 한번 실수하였던 마가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어서 다시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고, 그는 훗날에 마가복음의 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격려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이 가진 문제점이 아니라, 장점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사이에도 아낌없는 사랑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못한 점을 꾸짖기보다 인정과 칭찬의 말을 먼저 아낌없이 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사이 좋은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원망하는 말. 비평하는 말 대신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사람이 되어 줄 때, 우리 가정이 진정 사랑으로 하나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축복기도, 주기도

서로 안아주기